꿈나무들의 순수한 예술감성 물씬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 전시회

최근 10년 미술·작문부문 최고상 87점
출신·심사 참여 작가 작품 10여점 전시
13~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

2012년 57회 조은송 '가족여행'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미술과 작문부문 최고상 수상 작품들로 호남예술제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한다.

전시에는 최근 10년간 미술부문 최고상 수상작품 53점과 같은 기간 작문부문 최고상 수상작품 34점이 전시된다.

'가족여행' '내가 꿈꾸는 세상' '자연이 주는 선물' '꽃피는 우리 동네' '하늘에서 소금이 내린다면' '빛과 어둠' 등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따뜻하면서도 순수한 동심이 느껴지는 주제로들로 그려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 호남예술제 출신 또는 심사위원을 지냈던 최영훈 전 조선대 미대학장, 조윤성 조선대 미대 회화과 학과장, 서양화가 한희원과 강남구 작가, 정보섭 건축사사무소 포럼 대표이사 등 초청작가의 작품 10점도 함께 전시된다.

정보섭 대표이사는 제17회(중등부)와 21회(고등부) 호남예술제에서 각각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조윤성 교수는 제26회 초등부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최영훈 교수와 강남구 작가 모두 호남예술제를 통해 미술인의 꿈을 키웠고 이후 작가로 오랜 기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또 한희원 작가도 수차례 심사위원을 지냈다.

최영훈

한희원

강남구

조윤성

정보섭

2013년 58회 정재윤 '꽃피는 우리 동네'

2015년 60회 김민지 '내가 꿈꾸는 세상'

지난 1956년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시절 시작된 호남예술제는 해마다 1만~3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했다. 특히 1970년대에는 개막식에 10만명이 참석하는 등 지방에서 열리는 단일 문화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호남예술제는 그 규모 만큼이나 광주·전남 지역 출신 예술인들의 통과의례였다. 대부분이 호남예술제 경연을 통해 예술가로의 꿈을 키웠다.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여수 출신 사진작가 배병우, 강연균 화백 등 미술인을 비롯해 '한국바이올린의 대모' 김남윤 전 한예종 교수, '한국 발레 마이더스의 손' 김선희 한예종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최고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문지영 등 차세대 스타들도 호남예술제를 통해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일보는 기념 전시회에 이어 11월 호남예술제 60주년을 결산하는 책자도 발간한다. 책자에는 부문별 최고상 수상자 명단과 함께 호남예술제가 낳은 문화예술인들의 인터뷰와 기고, 60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화보가 담길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다. 문의 062-220-058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손봉채 '입체 회화' 세계를 품다

전세계 12개 지점 오페라 갤러리 전속…프랑스·영국·두바이 전시

13일부터 한달간 서울 전시
'이주민 연작' 해외시장 호평

'이주민'

'입체 회화'라는 독창적인 장르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설치미술가 손봉채(48). 그는 1997년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보이지 않는 구역'이란 키네틱아트(움직이는 작품)를 선보이며 단숨에 국내외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현대적 첨단 소재와 회화를 결합한 '입체 회화'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첨단 소재를 겹겹이 쌓아 입체감을 주는 그의 입체 회화는 단숨에 컬렉터들의 시선도 사로잡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손봉채가 올 하반기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두바이 등에서 열리는 전시에 잇따라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해외 미술시장에 진출한다.

손 작가는 프랑스를 주요 거점으로 둔 오페라 갤러리 전속 작가로 새로운 해외 미술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오페라 갤러리는 전 세계 12곳에 거점을 둔 갤러리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는 서울 오페라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고, 9월 초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갤러리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이후 싱가포르, 홍콩, 영국, 두바이 등 아시아와 유럽, 중동에서 잇따라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호평을 받아온 손 작가의 이주민 연작은 그동안 스위스 바젤과 마이애미 바젤, 스페인 아르코 등 해외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전시되는 등 작품 거의 대부분이 국외 미술시장에서 판매돼 왔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연작은 비행기 창문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첨단 소재 패널 5장에 각각 그림을 그린 작품이다. 회화와 설치미술의 중간쯤 되는 입체 회화는 공간감과 입체감이 특징이다. 특히 여기에 LED가 자아내는 빛의 교감으로 독특한 정서를 자아낸다.

이주민 연작은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작가는 "어느 날 도로에서 뿌리째 뽑혀 트럭에 실려가는 소나무들을 보고 가슴이 아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작가가 미국 유학시절 뉴욕에서 느꼈던 이민자들의 아픔과 궤를 나란히 하기도 한다.

작품 속에는 구름을 타고 망망대해 같은 하늘 위를 망연히 떠도는 소나무, 산을 넘거나 깎아지른 듯한 산 언덕에 위태로이 서 있는 소나무들이 장식된다. 구름은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이미지다. 이 같은 기법이 눈길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여백과 농담의 미다. 특히 LED가 먹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손 작가는 조선대 미대 출신으로 뉴욕의 프랫에서 석사를 마쳤다. /김경인기자 7kki@kwangju.co.kr

예향 남도의 풍류를 선사합니다

전남도립국악단 광복 70년·한일수교 50년 기념 후쿠오카 특별 공연

'예향 남도의 풍류를 선사합니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박승희)이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을 기념해 일본 후쿠오카에서 재일교포와 일본 관객들을 위한 특별 무대를 마련한다.

국악단은 남도한일문화친선교류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석중), 재일한국민단후쿠오카시지부(단장 김박장) 초청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일본 후쿠오카시 가스홀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단이 매달 열고 있는 토요 공연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3년 남도 여행차 목포를 방문, 국악단의 신명난 무대를 본 재일동포들이 일본 공연을 요청했고, 그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국악단은 일본 후쿠오카현 무나가타시 유릭스하모니홀에서 신명난 무대를 선사했었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선비들의 충정과 절개를 느껴볼 수 있는 춤극 '사군자의 향기', 판소리 흥보가 중 해학적인 대목으로 꼽히는 '마당창극-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 '부채춤'<사진>, '설장고 놀이', '국밥집에서', '가시버시 사랑', '배 띄워라' 등이다. 피날레 무대는 흥겨운 '판굿과 사자놀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